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 경험, 정서조절곤란,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권혜진 신효정[†]
아주대학교 / 학생 아주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경험, 정서조절곤란,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영유아를 양육 중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고, 총 30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9.0과 PROCESS Macro for SPSS 4.1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경험, 정서조절곤란, 부정적 양육태도, 배우자지지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배우자지지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효과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상경험이 높은 경우에는 배우자지지 수준에 따른 정서조절곤란의 예측값 차이가 매우 미미하여, 보호효과가 실질적으로 소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항상 보호적 자원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상경험의 정도 및 심리적 맥락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외상경험이 있는 양육자를 위한 상담 및 부모교육에서는 배우자지지의 질적 특성과 외상경험자의 정서 반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주요어 : 아동기 외상경험, 정서조절곤란, 부정적 양육태도, 배우자지지

[†] 교신저자 : 신효정,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연암관 820호, Tel : 031-219-3593, E-mail : blkbabe@ajou.ac.kr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보살핌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대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친인척 및 이웃들과 공동으로 양육을 분담했던 때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가족 형태가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주변 이웃들과의 교류는 점차 축소되면서 자녀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립된 양육환경 속에서 부모에게 편중되는 양육의 부담은 높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부모 역할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소진감이나 부담감을 느끼게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를 흐트러트리므로써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Abidin, 1992). 이렇게 부모의 양육 부담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양육태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학대는 만 18세 이전 아동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신체 및 정서학대, 방임, 성 학대 등을 뜻하는데,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7년 22,157건에서 2020년 38,929건으로 3년 만에 75.7%나 증가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정 보육이 늘어났던 2021년에는 52,083건으로 폭발적인 급증을 보였으며, 이후에도 2022년 44,531건, 2023년 45,77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 이는 양육 과정에서 겪는 부모의 스트레스와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에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양육태도가 표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지적,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인 측면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이므로(오영희, 엄정애, 1997), 이러한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자녀들이 겪게 될 심각한 문제들을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 조절 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친구관계의 질이 낮았으며(이임숙, 홍상환, 2015),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고 정서 및 행동 문제와 우울, 공격성 등이 높게 나타났다(남승은, 2017).

그러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단순히 ‘양육 스트레스’나 ‘사회적 고립’과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에만 귀인하는 것은 다소 단편적인 접근일 수 있다. 실제로 고립된 양육환경에 놓인 모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환경에서도 부모 개인의 성격 특성, 정신건강 상태, 애착 경험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 자신의 아동기 경험—그중에서도 학대나 방임 등 외상적 경험—은 성인이 된 후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외상은 신체적·정서적 발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김수정, 정익중, 2013), 그러한 외상을 경험한 부모는 자녀 양육 시 부정적 태도나 적대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정준미, 이재연, 2000; Hanetz-Gamliel & Dollberg, 2022; Randell et al., 2015).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부모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단순히 과거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성인기의 일상적 양육 상황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태도와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 주목한다. 아동기 외상경험의 영향이 반드시 자녀에 대한 학대나 폭력과 같은 극단적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반응성 저하나 과잉통제, 비밀관성 등으로 한층 더 폭넓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적 양육태도로 명명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아동 심리학자 Belsky (1984)는 양육의 결정요인에 대한 과정 모델(Process model of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을 제시하며, 양육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들을 각각 설명하였다. 그중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요인은 두 번째인 ‘부모 자신의 발달적 역사와 심리적 특징’이다. 이는 부모가 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던 양육방식, 부모와의 애착, 정서적 환경 등이 성인기 이후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준다. 즉, 아동기 시절에 일관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정서적으로 지지받지 못한 경험은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할 때 정서적으로 반응하거나 조절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내면화된 이런 경험이 긍정적 양육 태도의 형성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모의 생애 초기 외상적 경험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으로 ‘아동기 역경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이 있다. 아동기 역경경험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 부모의 정신질환, 가정폭력, 빈곤 등 다양한 외상적 요인을 포함하며(Felitti et al., 1998), 아동기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한 개인은 성인이 되어 자녀를 양육할 때 더 많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Banyard(1997)는 아동기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있는 여성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정서를 더 자주 표출하며, 체벌과 같은 강압적 양육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서 아

동기 외상을 경험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Bailey et al., 2012).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 행동의 반복적 양상은 Bandura(1971)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인간이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특히 아동은 부모나 양육자와 같은 가까운 인물의 행동, 정서 표현, 갈등 해결 방식 등을 관찰하여 자신의 행동 양식으로 내면화하고, 이후 대인관계 및 양육 행동에서 이와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동기 외상 경험을 한 부모는 성장 과정에서 학대, 방임, 정서적 소외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단지 공격적 행동뿐 아니라 정서적 반응 방식 자체를 학습하게 된다. 즉, 외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분노나 무력감, 회피와 같은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고, 이러한 정서조절 양식을 내면화한 채 성인기에도 유사한 대인관계 맥락에서 재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정서적 자극에 과민하거나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은 자녀 양육 상황에서도 지속되어, 정서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거나 강압적인 양육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학습된 반응은 외상 이후 자동화된 방식으로 반복되기 쉽고, 아동기 외상은 부모의 양육 행동을 매개로 하여 세대 간에 전이될 수 있는 심리적 경로로 작용한다(Keenan et al., 2010; Madigan et al., 2006). 같은 맥락에서 Clark 등(2007)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정상적인 양육방식을 학습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성장할 경우, 이후 학대의 가해자가 될 위험이 크다고 설명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문희와 이수림(2015)은 어린 시절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이며 거부적인 양육환경을 경험한 부모가 그 양육 방식을 내면화하여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고, 최옥순(2003)은 아동기의 가정폭력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 겪게 될 수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며, 실제 가정폭력 가해 행동을 유발하는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지속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아동기 외상 경험은 부모의 양육태도뿐 아니라 성인기의 정서적 기능 전반에도 심층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상 경험은 정서 인식, 충동 조절, 대인관계 형성 등 다양한 정서적 기능에 장기적인 변화를 초래하며(Cloitre et al., 2005),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더 취약한 반응을 유발하고 자기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Kim & Cicchetti, 2010). 또한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도 아동기 외상은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능과 전전두엽의 통제 능력에 영향을 주어 감정 처리 과정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Cicchetti & Toth, 2005). 이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요구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즉각적이고 일관된 반응을 보이지 어려워지며, 이는 양육 과정에서 정서적 예민함과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가능케 하는 정서 인식 및 조절 능력과 관련된 정서 반응 체계에 아동기 외상이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일관된 반응을 보이지 어려운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정서조절곤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서조절

곤란(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이란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을 인식하고, 수용하며,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지칭하는데(Gratz & Roemer, 2004), 이는 외상 경험 이후 나타나는 대표적인 심리적 후유증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 정서조절이론(Gross, 1998; Thompson, 1994)에 따르면, 개인의 정서 인식 및 조절 능력은 발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 이 체계의 토대가 된다. 아동기 외상경험은 이러한 정서반응 체계의 발달을 방해하여, 성인기에도 부적응적 조절 전략(예, 회피, 억제, 과각성 등)을 지속시키는 경향을 보이게 할 수 있다(Briere & Scott, 2015). 이러한 정서조절의 결함은 양육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자녀의 행동을 위협적 자극으로 지각하게 하여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이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아동기 외상 경험이 높은 성인은 감정적 자극에 대해 더 강렬한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감정을 억제하고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 Cicchetti, 2010), 이러한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분노, 좌절, 감정 기복 등으로 인해 일관성 없는 양육행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즉,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개인은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조절하는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게 되며(Paivio & Laruent, 2001), 그 결과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Ehring & Quack, 2010). 이러한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학대 상황 속에서 강한 불안을 느끼지만,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Shields & Cicchetti, 1998), 타인에게 방어적인 태도나 공격적인 반응을 나

타내기 쉽다(Luxenberg et al., 2001). 이와 같은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양육 상황에서의 부정적 감정 처리 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향후 자녀에게 적절하고 일관된 반응을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되며, 결과적으로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Crandall et al., 2015).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Bowlby(1980, 1988)는 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여 이후 관계 및 정서조절 양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아동기 외상경험은 이러한 애착체계의 안정성을 손상시키게 됨으로써 성인기 관계에서 불안형 혹은 회피형 애착 경향으로 나타나며(Mikulincer & Shaver, 2016), 불안정 애착은 개인의 정서적 반응성과 조절 능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부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불안정 애착이 정서조절곤란을 매개하여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김예진, 2022), 부모의 아동기 역경경험은 정서조절을 어렵게 하며 정서조절곤란이 거부적, 적대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배효정, 2023). 또한 한기백(2014)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경험이 성인기 심리적 어려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정적인 양육태도 사이에서 정서조절곤란이 핵심 매개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기 외상경험을 가진 모든 부모가 반드시 불안정한 정서조절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상 이후 개인이 보유한 심리적 내적 자원과 환경적 자원에 따라 정서조절 능력

의 유지 및 회복 양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조절의 수준은 다시 양육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기 외상경험, 정서조절 곤란,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탐색할 때는 개인의 회복을 지원하는 조절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하위 유형 중 하나인 ‘배우자지지’는 외상 이후 부모의 적응을 완화하는 핵심적 사회적 자원으로 주목받아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지지는 부모의 정서조절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정서적 지지를 경험한 부모는 외상 이후에도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Cutrona, 1996; Shaffer & Obradović, 2017). 이러한 배우자지지는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회복을 촉진하고, 일상적 양육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외상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완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Shaffer & Obradović, 2017). 종합하면, 배우자지지는 외상 경험을 가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정서조절 곤란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에서 Masten(2001)은 스트레스와 외상의 영향을 완충하는 데 있어 가까운 관계에서의 정서적 지지가 핵심적인 보호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배우자지지는 정서적으로 가장 밀접한 지지 자원으로 외상 경험자의 정서적 기능 회복과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Jaffee 외(2013)의 종단 연구에서는 과거 부정적인 양육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학대를 반복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보고되었는데, 이들은 배우자와의 안정적이고 신뢰 기반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양육 태도가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에서도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정서조절곤란이 낮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도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최윤경, 조희금, 2019), 반대로 배우자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 과부하를 겪기 쉬우며, 이는 곧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전이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유진희 외, 2020). 이는 아동기 외상경험이라는 위협요인이 정서조절곤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배우자지지가 정서적 안정감과 자기조절 능력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외상경험과 정서조절곤란 사이의 강도를 달리하게 만드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부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매개 경로에서의 정서조절곤란을 배우자지지가 조절 가능한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자녀에게 미치는 양육태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부모 중에서도 주양육자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어머니에게 더욱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남편을 내조하며 자녀 양육에 힘쓰던 과거부터,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돌보는 역할은 여전히 어머니의 몫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내 맞벌이 가구는 꾸준히 증가해 2023년 기준 전체 부부 가구 중 48.2%를 차지하고 있지만(통계청, 2023), 맞벌이 가구 내에서 어머니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1.69시간으로, 아버지(4.71시간)보다 약 2.5배 길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보건복지부(2024)가 발표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아동의 주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90.4%에 달해, 아버지(6.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어머니가 자녀 양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현실에서,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은 자녀의 발달과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 영유아(0~72개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영유아기는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는 수면 부족과 신체적 피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 가장 큰 시기로, 실제로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 결과(유우영, 이경숙, 1998)는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이와 동시에 영유아 자녀의 경우 이때 정서적 안정감과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 해당 시기는 어머니와 자녀 모두에게 전환점이 되는 민감한 시기이므로, 영유아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과 양육태도를 탐색하는 것은 양측에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경험이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부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상경험을 지닌 어머니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부정적인 양육태도 간의 연결 고리를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고,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 지점과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경험, 부정적 양육태도, 정서조절곤란, 배우자지지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정적 양육태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효과를 갖는가? 셋째,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

경험, 정서조절곤란, 부정적 양육태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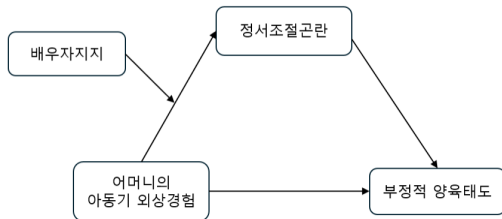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 중 영유아(0~72개월)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문기관 인바이트를 통해 시행되었다. 설문은 2025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00부가 유효한 결과로 회수되었다. 이후 사전 문항을 통해 자녀의 주양육자가 아닌 어머니 26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7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는 배우자 지지에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274)

| 구분 | 빈도(%) | |
|--------|---------------|-----------|
| 어머니 나이 | 20대 | 7(2.6) |
| | 30대 | 190(69.3) |
| | 40대 | 76(27.7) |
| | 50대 | 1(0.4) |
| 어머니 학력 | 고등학교 졸업 | 11(4.0) |
| | 전문대학 졸업 | 44(16.1) |
| | 대학교 졸업 | 190(69.3) |
| | 대학원 졸업 | 29(10.6) |
| 어머니 직업 | 전업주부 | 79(28.8) |
| | 회사원 | 126(46.0) |
|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 | 20(7.3) |
| | 전문직 | 24(8.8) |
| | 판매 및 서비스직 | 10(3.6) |
| | 자영업 | 4(1.5) |
| | 기능 및 기술직 | 8(2.9) |
| 기타 | 3(1.1) | |
| 자녀 수 | 1명 | 153(55.8) |
| | 2명 | 100(36.5) |
| | 3명 | 18(6.6) |
| | 4명 | 3(1.1) |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형태를 가진 기혼 여성들의 응답만을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나이는 30대가 190명(69.3%)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 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아서 190명(69.3%)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으로는 회사원이 126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업주부가 79명(28.8%), 전문직이 24명(8.8%),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이 20명(7.3%)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녀 수는 1명(외동)이 153명(55.8%)으로 가장 많았고 2명은 100명(36.5%), 3명은 18명(6.6%), 4명은 3명(1.1%)로, 1명 혹은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아동기 외상경험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하였으며 김은정과 김진숙(2010)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 등 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당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적 학대를 독립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최근 연구 동향에 따라서 성적 학대는 제외하여 총 문항수는 20문항으로 하였다. 11~15번, 17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식으로 응답 되고 ‘전혀 없음(0점)’에서 ‘자주 있음(3점)’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학대와 방임의 경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Bernstein과 Fink(1998)의 연구에서 .81~.95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원영(1983)이 번안한 Schaefer 외(1959)의 MBRI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정화주(2003)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긍정적 양육태도 및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양육태도는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를 포함하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거부적 태도, 통제적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각 하위요인은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4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하위요인의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정화주(2003)의 연구에서 .80~.96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는 .81로 나타났다.

정서조절곤란

정서조절곤란을 측정하기 위하여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를 조용래(2007)가 번안, 신뢰도 및 타당도를 입증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K-DER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6개 하위요인인 충동 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문항이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거의 언제나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조용래(2007)의 연구 2에서 .73~.90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96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지지

배우자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수정과 유성경(2016)이 기혼 직장인 남녀를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일·가정 양립에 관한 배우자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나의 일에 대한 존중’(6문항), ‘자녀양육 및 교육을 공유함’(6문항), ‘가정 일을 도움’(6문항), ‘어려움에 대한 지지’(6문항)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일부 문항의 내용이 직장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전업주부인 응답자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없음’ 응답을 추가하여 총 6개의 응답 선택지를 제시하였고, 분석 시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문항은 결측으로 처리한 후 평균을 산출하였다. 김수정과 유성경(2016)의 연구에서는 요인 로우 계수(factor rho coefficient)로 신뢰도를 측정하여 .91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96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9.0과

SPSS PROCESS macro 4.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모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에 위해 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한 후,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변인 간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정적 양육태도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1번을 실시하여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고, SPSS PROCESS macro model 7번을 실시하여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정적 양육태도, 정서조절곤란, 배우자지지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및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경험은 부정적 양육태도, 정서조절곤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으며($r=.308, p<.001$; $r=.462, p<.001$), 배우자지지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확인되었다($r=-.180, p<.001$). 즉, 아동기 외상경험이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와 정서조절곤란이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지지는 낮게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태도의 경우 정서조절곤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고($r=.445,$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N=274)

| | 1 | 2 | 3 | 4 |
|-------------|-------------|-------------|-------------|-------------|
| 1. 아동기 외상경험 | - | | | |
| 2. 부정적 양육태도 | .308** | - | | |
| 3. 정서조절곤란 | .462** | .445** | - | |
| 4. 배우자지지 | -.180** | .083 | -.200** | - |
| 최솟값 / 최댓값 | 1.00 / 3.50 | 2.28 / 4.56 | 1.11 / 3.83 | 1.00 / 5.00 |
| 평균 | 1.69 | 3.19 | 2.45 | 3.85 |
| 표준편차 | .572 | .363 | .690 | .750 |
| 왜도 | .871 | .281 | -.014 | -.847 |
| 첨도 | -.025 | .837 | -1.15 | .863 |

주. * $p < .05$, ** $p < .001$

$p < .001$), 배우자지지와는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정서조절곤란은 배우자지지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 = -.200$, $p < .001$). 표 2의 하단에는 최솟값/최댓값,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산출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왜도는 $-.847 \sim .871$, 첨도는 $-1.15 \sim .863$ 였다. 왜도의 절대값이 2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7 미만일 경우 정규성 가정을 따르므로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은 모두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West et al., 1995).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정적 양육태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Hayes(2022)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실시하였고 어머니 나이와 자녀 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이는 두 변수가 결혼 연차 등과 연관되어 양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잠재적 교란 변인을

통제하여 변수 간 순수한 관계를 더욱 정확히 추정하기 위함이다(Hayes, 2022). 해당 결과는 표 3,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모형에 통제변수로 포함된 어머니 나이와 자녀 수는 정서조절곤란과 부정적 양육태도 모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어머니 나이($B = -0.021$, $p = .790$), 자녀 수($B = -0.031$, $p = .586$)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해서도 어머니 나이($B = -0.039$, $p = .332$), 자녀 수($B = 0.043$, $p = .15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어머니 나이와 자녀 수가 정서조절곤란 및 부정적 양육태도와 직접적으로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정서조절곤란이 부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B = .203$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정적 양육태도 사이에서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 값은 .113이었으며,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과 신뢰구

표 3.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정적 양육태도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결과(어머니 나이, 자녀 수 통제)

| 변수 | 정서조절곤란 | | | | | 부정적 양육태도 | | | | |
|----------------|--------|------|---------|-------|------|----------|------|---------|-------|------|
| | B | SE | β | t | p | B | SE | β | t | p |
| 어머니 나이 | -.021 | .077 | -.015 | -2.66 | .790 | -.039 | .041 | -.054 | -.971 | .332 |
| 자녀 수 | -.031 | .058 | -.030 | -5.45 | .586 | .043 | .030 | .080 | 1.43 | .153 |
| 아동기 외상경험 | .558 | .065 | .462** | 8.53 | .000 | .078 | .039 | .122* | 2.00 | .046 |
| 정서조절곤란 | | | - | | | .203 | .032 | .386** | 6.35 | .000 |
| F(p) | | | 24.7 | | | | | 18.7 | | |
| R ² | | | .215 | | | | | .218 | | |

주. * $p < .05$, ** $p < .001$

표 4.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

| 변수 | Effect | BootSE | 95% CI | |
|------|--------|--------|----------|----------|
| | | | BootLLCI | BootULCI |
| 매개변수 | .113 | .024 | .070 | .165 |

주. Bootstrap samples = 5,000

간(BootLLCI=.070, BootULCI=.165)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동기 외상경험이 부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역시 $B=.078(p=.046)$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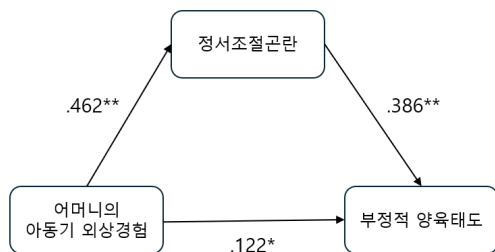


그림 2.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경로 모형

아동기 외상경험, 정서조절곤란, 부정적 양육태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된 매

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먼저 배우자 지지가 아동기 외상경험과 정서조절곤란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선행연구(Hayes, 2022; Muller et al., 2005)를 참고하였다. 이후 아동기 외상경험이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부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순차적으로 확인하였다.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

아동기 외상경험,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1번을 실시하였다. 아을

러 앞서 매개효과 분석에서 언급한 사유로 어머니 나이와 자녀 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 나이와 자녀 수는 각각 $B=-0.039(t=-0.517, p=.605)$, $B=-0.026(t=-0.459, p=.647)$ 로 나타나, 통제변인들은 부정적 양육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아동기 외상경험은 정서조절곤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0.543, p<.001$), 배우자지지는 정서조절곤란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0.134, p=.009$). 또한 아동기 외상경험과 배우자지지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B=0.192, p=.013, 95\% CI [0.042, 0.342]$), 배우

자지지가 아동기 외상경험과 정서조절곤란 간의 관계를 조절함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은 유의미하였으며($F=17.825, p<.001$), 조절변수의 추가로 설명력의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다($\Delta R^2=.018, F=6.312, p=.013$).

조절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지지를 $-1SD$, 평균, $+1SD$ 수준으로 나누어 조건부 효과를 분석한 결과(표 5 참조), 세 조건 모두에서 아동기 외상경험은 정서조절곤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외상경험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배우자지지 수준이 높은 경우($+1SD$) 정서조절곤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배

표 5. 아동기 외상경험과 정서조절곤란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 결과(어머니 나이, 자녀 수 통제)

| | B | SE | t | p |
|--------------------|------------------------------|------|--------|------|
| 어머니 나이 | .039 | .076 | -.517 | .605 |
| 자녀 수 | -.026 | .057 | -.459 | .647 |
| 아동기 외상경험 | .543 | .066 | 8.205 | .001 |
| 배우자지지 | -.134 | .050 | -2.652 | .009 |
| 아동기 외상경험 *배우자지지 | .192 | .076 | 2.512 | .013 |
| F(p) | 17.825(.001 ^{***}) | | | |
| R ² | .249 | | | |
| ΔR^2 | .018($F=6.312, p=0.013^*$) | | | |

주. * $p<.05$, ** $p<.01$, *** $p<.001$

표 6. 배우자지지의 조건부효과 검정

| 배우자지지 | Effect | SE | t | p |
|-------|--------|------|-------|------|
| -1SD | .399 | .084 | 4.753 | .001 |
| Mean | .543 | .066 | 8.205 | .001 |
| +1SD | .697 | .090 | 7.630 | .001 |

주.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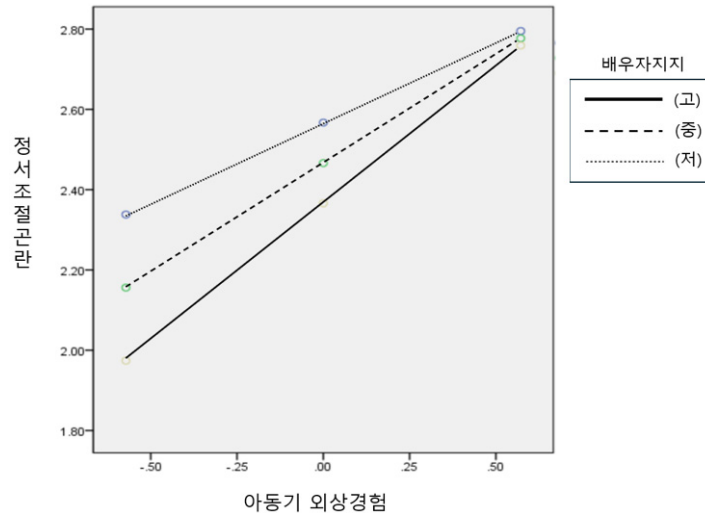


그림 3.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 그래프

우자지지가 낮은 경우(-1SD)에는 정서조절곤란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나 공감적 반응이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외상경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배우자지지 수준에 따른 정서조절곤란의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나,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가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즉, 높은 외상경험을 가진 경우 배우자지지의 수준이 정서조절곤란을 완충하거나 부정적 양육태도를 완화하는 보호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배우자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동기 외상경험이 부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와 이 매개경로에서 배우자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7을 이용

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앞서 매개효과 분석에서 언급한 사유로 어머니 나이와 자녀 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 나이와 자녀 수는 정서조절곤란에 대해 각각 $B=-0.039, SE=0.076, t=-0.517, p=.605$, $B=-0.026, SE=0.057, t=-0.459, p=.647$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변수들은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주요 예측변수들의 효과에 혼입되지 않도록 통계적으로 들어갔으나,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아동기 외상경험은 정서조절곤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543, SE=0.066, t=8.205, p<.001$). 반면, 배우자지지는 정서조절곤란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0.134, SE=0.050, t=-2.652, p=.009$), 아동기 외상경험과 배우자지지의 상호작용항은 정서조절곤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B=0.192, SE=0.076, t=2.512, p=.013$), 배우자지지가 아동기 외상경

험과 정서조절곤란 간의 관계를 조절함을 확인하였다. 상호작용 효과의 설명력 증가는 $\Delta R^2=0.18$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6.312, p=.013$).

조건부 효과 분석 결과, 배우자지지 수준이 $-1SD(-0.75)$ 일 때 아동기 외상경험이 정서조절 곤란에 미치는 효과는 $B=0.399(SE=0.084, t=$

$4.753, p<.001)$, 평균일 때는 $B=0.543(SE=0.066, t=8.205, p<.001)$, $+1SD(0.75)$ 일 때는 $B=0.697(SE=0.090, t=7.630, p<.001)$ 로 나타나, 배우자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기 외상경험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기 외상경험은 부정적 양육태도

표 7. 배우자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결과(어머니 나이, 자녀 수 통제)

| 변수 | B | SE | t | p | |
|-------------|-------------|--------|-------|--------|-------|
| 정서조절곤란(M) | 어머니 나이 | -.039 | .076 | -.517 | .605 |
| | 자녀 수 | -.026 | .057 | -.459 | .647 |
| | 상수항 | 2.634 | 0.243 | 10.828 | <.000 |
| | 아동기 외상경험(X) | 0.543 | 0.066 | 8.205 | <.000 |
| | 배우자지지(W) | -0.134 | 0.050 | -2.652 | 0.009 |
| | X*W | 0.192 | 0.076 | 2.512 | 0.013 |
| 부정적 양육태도(Y) | 어머니 나이 | -.039 | .041 | -.971 | .332 |
| | 자녀 수 | .043 | .030 | 1.432 | .153 |
| | 상수항 | 2.624 | 0.155 | 16.941 | <.000 |
| | 아동기 외상경험(X) | 0.078 | 0.039 | 2.002 | 0.046 |
| | 정서조절곤란(M) | 0.203 | 0.032 | 6.348 | <.000 |

주. * $p<.05$, ** $p<.01$, *** $p<.001$

표 8. 배우자지지의 조건부 간접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결과

| 배우자지지 | Conditional indirect effect | Boot SE | Boot 95% CI |
|----------------|-----------------------------|---------|----------------|
| $-1SD(-0.750)$ | 0.070 | 0.024 | [0.026, 0.124] |
| Mean | 0.110 | 0.022 | [0.067, 0.159] |
| $+1SD(0.750)$ | 0.151 | 0.030 | [0.098, 0.212] |

주. * $p<.05$, ** $p<.01$, *** $p<.001$

|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 Boot SE | Boot 95% CI |
|------------------------------|---------|----------------|
| $-1SD(-0.750)$ | 0.083 | [0.018, 0.032] |

에도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78$, $SE=0.039$, $t=2.002$, $p=.046$). 정서조절곤란 역시 부정적 양육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B=0.203$, $SE=0.032$, $t=6.348$, $p<.001$),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역시 유의하였다. 아동기 외상경험이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부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배우자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조건부 간접효과는 표 8과 같다. 간접효과에 대한 조절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는 0.179이며,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0.018, 0.332]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배우자지지가 높을수록 아동기 외상경험이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부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지지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정서조절곤란 간의 관계를 조절하며, 외상경험이 낮을 때에는 정서적 취약성을 줄이는 보호적 기능을 보였으나, 외상경험이 높아질 경우에는 정서적 어려움이 더욱 두드러져 부정적 양육태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가 오히려 커지는 양면적 조절 양상이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 경험이 현재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곤란의 매개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정서조절곤란의 매개 경로에서 배우자지지가 조절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외상경험

이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부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여 향후 부모교육 및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경험, 정서조절곤란, 부정적 양육태도, 배우자지지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먼저 아동기 외상경험은 부정적 양육태도 및 정서조절곤란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해당 결과를 통해 어릴 때 겪은 외상경험이 삶의 전반적인 정서 조절 능력의 결핍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후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부정적인 관련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지지는 아동기 외상경험 및 정서조절곤란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개인일수록 과거 외상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덜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결과들은 Cloitre 등(2005)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기의 외상경험이 이후 정서조절의 어려움 및 대인관계 기능 저하와 연관됨을 지지하며, Rojas(2021)의 연구에서 보고된 외상 경험이 부모의 반영적 기능 및 정서조절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아동기 학대 경험으로 갖는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중재하는 변인이라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박경, 2005).

둘째,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경험을 가진 성인이 자녀 양육과 같이 정서적 자원이 많이 요구되는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

시기에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거부적, 통제적인 양육태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아동기 외상경험은 정서조절 능력 및 자기통제력을 약화시켜 자녀 양육시 일관성 있는 반응과 정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Kim과 Cicchetti(2010)의 연구에서 아동기 외상경험을 지닌 성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더 강렬하게 경험하고, 이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으며 양육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정서조절 능력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부정적 양육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며(Morelen et al., 2014), 아동기 외상경험이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이 양육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고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선행연구(Shaffer et al., 2012)와도 유사하다.

셋째, 아동기 외상경험, 정서조절곤란,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는 정서조절곤란 경로를 조절하는 역할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외상경험이 낮은 경우에는 배우자지지가 정서조절곤란을 완충하여 부정적 양육태도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외상경험이 높은 경우에는 배우자지지가 정서조절곤란을 충분히 낮추지 못해, 배우자지지의 보호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상경험이 높은 부모에게는 높은 수준의 배우자지지라고 하더라도 내적 정서조절 어려움을 충분히 완충하거나 부정적 양육태도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미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경험자가 배우자의 지

지를 지각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외상경험자는 타인의 지지나 애정 표현을 통제·감시·비난 신호로 오해하거나 불신하는 경향이 있으며(Liotti, 2004; Mikulincer & Shaver, 2007), 실제 지지 행동이 있더라도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안·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반면, 외상경험이 낮은 집단에서는 배우자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이 낮아, 지지가 정서적 안정과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높이고 부정적 정서와 신체 증상을 완화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되었다(Cohen & Wills, 1985). 이와 같은 차이는 외상경험 수준에 따라 배우자지지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외상경험이 높은 집단에서 보호기능이 약화된 현상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아동기 애착외상을 경험한 개인의 경우, 이후 친밀한 관계에서 지지를 위협이나 통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정서적 개입이 강할수록 방어 반응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Liotti, 2004). 예컨대, 불안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은 관계에 대한 불신과 거절 민감성이 높아,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곧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경험하여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Mikulincer & Shaver, 2007). 또한 회피형 애착 성향의 경우, 정서적 접근 자체를 자율성의 침해로 인식하며 감정을 억제하는 방식을 통해 반응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정서적 긴장과 억압을 심화시킬 수 있다(Diamond et al., 2007). 이러한 이유로 아동기 외상경험자가 배우자의 지지를 높게 느낄 경우 현재 보여지는 지지나 애정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불안 등으로 인해 위협적

인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거나 배우자가 자신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오인식하게 될 수 있으며, 결국 지지가 갖는 보호효과가 상실되면서 정서조절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생존 전략으로서 감정을 억제하거나 ‘감정적 무감각화(emotional numbing)’를 보일 수 있다. 이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동화된 심리 기제로 작동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렇게 감정적 무감각화로 인해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외상경험자가 배우자로부터 “너의 모든 감정을 받아들일게”, “그냥 솔직히 표현해도 돼”와 같은 전폭적 수용의 메시지를 받게 되면, 평소 억제되어 있던 정서가 갑작스레 떠올라 감정적 혼란이나 충동 조절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감정 인식의 어려움’과 ‘충동 통제’의 어려움’ 등 정서조절곤란의 핵심 구성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Cloitre et al., 2005), 정서적 반응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여 오히려 전반적인 정서조절곤란을 악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서, 외상 회복의 과정에서는 ‘감정 재각성(emotional resurgence)’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치료나 지지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되며 억눌렸던 감정이 표면화되는 순간 오히려 고통이 심화되는 경험을 말한다(Herman, 1992). 즉, 외상을 회복하는 과정 중의 지지적인 대인관계가 항상 완충적이거나 편안함을 제공하는 효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외상 경험자들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가 조절효과를 보이거나, 외상경험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외상경험이 적은 어머니의 경우 배우자지지가 정서조절곤란을 완충하여 부정적 양육태도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외상경험이 많은 어머니의 경우에는 배우자지지가 정서조절곤란을 완충하는 보호효과가 미미하여 부정적 양육태도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및 부모교육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적용 방안을 시사한다. 첫째, 외상경험이 많은 내담자의 경우, 배우자지지의 단순한 강화만으로는 보호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담 초기에는 배우자지지의 질적 특성(지지의 방식, 내용, 전달 방법 등)을 세밀하게 평가하고, 내담자가 배우자의 지지를 위협이나 통제로 인식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탐색하여 교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서적 안전기반(safe base) 구축, 정서 인식 및 표현 훈련, 자기돌봄 프로그램 등 맞춤형 심리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외상경험이 많은 내담자에게는 상담 현장에서 정서적 반응을 안전하게 경험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단계적 개입이 중요하다. 즉, 지지 경험을 즉시 강화하기보다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적 반응과 불안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개발하도록 돕고, 이후에 배우자지지와 상호작용을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셋째, 외상경험이 적은 내담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지지가 정서조절곤란을 완화하고 부정적 양육태도를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므로, 상담 현장에서 배우자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공동 양육 전략, 가족 중심 개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 설계 시 내담자의 외상경험 수준과 배우자 지지 인식 수준을 함께 진단하여 개별화된 상담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심리적 안전기반 구축과 지지의 질적 조정, 부부 동반 개입 등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 결과는 부모상담 및 가족치료 현장에서 외상경험 수준에 따라 배우자 지지의 개입 방식과 목표를 달리해야 함을 보여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장 적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외동이면서 영유아인 경우와 여러 명이면서 영유아 자녀가 1~3명인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이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없었다. 이는 형제관계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미묘한 차이를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로, 향후 연구에서는 외동과 다자녀를 구분하고 다자녀의 경우 출생 순위별로 응답을 구분하는 설문지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Davis & Sturge-Apple, 2019; Volling, 2012).

둘째, 연구 대상 분석에 대해 세밀한 설정을 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업 및 가정의 경제활동 형태(맞벌이·외벌이 여부)에 관한 자료는 확보되었으나, 주요 심리적 경로 탐색에 중점을 두기 위해 직접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직장 내 스트레스, 가사·양육 부담 수준 등 세부적 근로 특성이 양육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Nomaguchi & Milkie, 2020),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와 어머니의 일-가정 균형까지 포함한 다층적 분석을 권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외상 경험 문항 중 ‘성적 학대’ 항목을 제외하였다. 이는 민감한 문항으로 인한 응답자 탈락 가능성과 연구윤리 심의 과정에서의 수용성, 응답자의 심리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외상경험의 범주가 다소 축소되어, 외상 경험의 심각도와 부정적 심리적 영향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윤리적·심리적 안전 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상태에서 성적 학대 경험을 포함한 포괄적인 외상 경험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외상 경험 유형별 차이를 세분화하여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영유아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경험, 정서조절곤란, 그리고 사회적 지지 중 특히 배우자지지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된 배우자지지의 보호효과는, 어머니가 아동기 외상경험으로 인해 정서적·대인관계적 취약성을 지닌 경우에는 약화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정서조절 체계의 취약성으로 인해 배우자지지와 같은 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발견은 사회적 지지를 단일 차원의 보호요인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외상 이력과 심리적 취약성을 함께 고려한 다층적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상 유형과 심각도, 배우자지지의 질적 특성 등 다양한 맥락과 변인을 반영하여 본 연구의 모형이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수정, 유성경 (2016). 일-가족 양립에 관한 배우자 지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971-1002.
- 김수정, 정익중 (2013). 아동학대가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3, 1-28.
- 김예진 (2022). 불안정애착과 양육태도 문제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김진숙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05-630.
- 남승은 (2017).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 (2005).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2), 131-147.
- 배효정 (2023). 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아동기 역경 경험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과 양육스트레스의 이중매개효과. *차의과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24). *보건복지통계연보*.
- 오영희, 엄정애 (1997). 부모와 자녀. *동현출판사*.
- 유우영, 이경숙 (1998).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27-40.
- 유진희, 김지은, 박소영 (2020). 배우자 지지가 어머니의 정서조절곤란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1(3), 345-358.
- 이문희, 이수림 (2015). 부모의 아동기 역경경험이 부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7), 183-207.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 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임숙, 홍상환 (2015).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4(3), 315-336
- 정준미, 이재연 (2000). 부모의 아동기 폭력 경험과 자녀 체벌과의 관계모형. *아동학회지*, 21(1), 85-98.
- 정화주 (2003). 정신지체인의 작업수행과 부모 양육태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 최옥순 (2003). 성인의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과 가정폭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 조희금 (2019). 배우자 지지가 어머니의 정서조절곤란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2),

- 77-92
- 통계청 (2023). 2023년 맞벌이 가구 비율 통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 한기백 (2014).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자기존중감과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15-340.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1-41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 Bailey, H. N., DeOliveira, C. A., Wolfe, V. V., Evans, B., & Hartwick, C. (2012). The impact of childhood maltreatment history on parenting: A comparison of maltreatment types and assessment methods. *Child Abuse & Neglect*, 36(3), 236-246.
- Bandura, A. (1971).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Banyard, V. L. (1997). The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nd family functioning on four dimensions of women's later parenting. *Child Abuse & Neglect*, 21(11), 1095-1107.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ernstein, D. P., & Fink, L.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Basic Books.
- Briere, J. N., & Scott, C. (2015). *Principles of trauma therapy: A guide to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2nd ed.)*. SAGE Publications.
- Cicchetti, D., & Toth, S. L. (2005). Child maltreatment.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 409-438.
- Clark, R. E., Clark, J. F., & Adamec, C. A. (2007). Cycle of abuse. In R. E. Clark, J. F. Clark, & C. A. Adamec (Eds.), *The encyclopedia of child abuse* (3rd ed., pp. 66-68). Facts On File.
- Cloitre, M., Miranda, R., Stovall-McClough, K. C., & Han, H. (2005). Beyond PTSD: Emotion regul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as predictors of functional impairment in survivors of childhood abuse. *Behavior Therapy*, 36(2), 119-124.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randall, A., Deater Deckard, K., & Riley, A. W. (2015). Maternal emotion regulation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are associated with greater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36(7), 924-947.
- Cutrona, C. E. (1996). *Social support in couples: Marriage as a resource in times of stress*. Sage Publications.
- Davis, E. F., & Sturge-Apple, M. L. (2019). The influence of sibling relationships on young children's adjustment: The role of parenting and family dynamics. *Child Development*

- Perspectives*, 13(4), 223 - 228.
- Diamond, D., Blatt, S. J., & Lichtenberg, J. D. (Eds.). (2007). *Attachment and sexuality*. The Analytic Press.
- Ehring, T., & Quack, D. (2010).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in trauma survivors: The role of trauma type and PTSD symptom severity. *Behavior Therapy*, 41(4), 587-598.
- Felitti, V. J., Anda, R. F., Nordenberg, D., Williamson, D. F., Spitz, A. M., Edwards, V., Koss, M. P., & Marks, J. S. (1998). Relationship of childhood abuse and household dysfunction to many of the leading causes of death in adults.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 Stud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4(4), 245-258.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271 - 299.
- Hanetz-Gamliel, K., & Dollberg, D. G. (2022). Links between mothers' ACEs, their psychopathology and parenting, and their children's behavior problems-A mediation model. *Frontiers in Psychiatry*, 13, Article 1064915.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Guilford Press.
- Herman, J. L. (1992).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Basic Books.
- Jaffee, S. R., Caspi, A., Moffitt, T. E., & Taylor, A. (2013). Safe, stable, nurturing relationships break the intergenerational cycle of abuse: A prospective nationally representative cohort of children in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Family Violence*, 28(3), 265-275.
- Keenan, K., Hipwell, A. E., & Loeber, R. (2010).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An overview. In D. P. Farrington & J. W. Coid (Eds.), *Early revention of adult antisocial behavior* (pp. 1-1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J., & Cicchetti, D. (2010). Longitudinal pathways linking child maltreatment, emotion regulation, peer relations,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6), 706-716.
- Liotti, G. (2004). Trauma, dissociation, and disorganized attachment: Three strands of a single brai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1(4), 472-486.
- Luxenberg, T., Spinazzola, J., & van der Kolk, B. A. (2001). Complex trauma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 (DESNOS): Diagnosis, part two.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4(2), 339-359.
- Madigan, S., Moran, G., Schuengel, C., Pederson, D. R., & Otten, R. (2006). Unresolved m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s, disrupted maternal behavior and disorganized attachment in infancy: A review and meta-analysi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2), 435-452.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7).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Guilford Press.
- Morelen, D., Shaffer, A., & Suveg, C. (2014). Maternal emotion regulation: Links to emotion parenting and child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37(13), 1891-1916.
-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52-863.
- Nomaguchi, K., & Milkie, M. A. (2020). Parenthood and well-being: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2(1), 198 - 223.
- Paivio, S. C., & Laurent, C. (2001). Empathy and emotion regulation: Reprocessing memories of childhood abuse. *Psychotherapy in Practice*, 57(2), 213-226.
- Randell, K. A., O'Malley, D., & Dowd, E. T. (2015). Association of parental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current child adversity. *JAMA Pediatrics*, 169(8), 786-787.
- Rojas, S. (2021). *Emotional regulation as a mediator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parental reflective functioning* (Publication No. 27669537) [Doctoral dissertation,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 Schaefer, E. S., Bell, R. Q., & Bayley, N. (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 83-104.
- Shaffer, A., Burt, K. B., Obradović, J., Herbers, J. E., & Masten, A. S. (2012). Parenting stress mediates between maternal maltreatment history and maternal sensitivity in a community sampl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5), 688-695.
- Shaffer, A., & Obradović, J. (2017). Unique contributions of emotion regulation and executive functions in predicting the quality of parent - child interaction behavio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1(2), 150-159.
- Shields,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4), 381-395.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5-52.
- Volling, B. L. (2012). Family transitions following the birth of a sibling: An empirical review of changes in the firstborn's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38(3), 497-528.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Publications.
- West, W, Hicks, A, Clements, L., & Dowling, J.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ary electromyogram, endurance time and intensity

권혜진 · 신호정 /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 경험, 정서조절곤란,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of effort in isometric handgrip exercise.
European Journal of Applied Physiology, 71(4),
301-305.

원 고 접 수 일 : 2025. 09. 10

수정원고접수일 : 2025. 10. 28

게 재 결 정 일 : 2025. 12. 05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pous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hood Trauma,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s

Hye Jin Kwon

Ajou University / Student

Hyo Jung Shin

Ajou University /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pous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hood trauma,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s raising young children.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300 mothers across South Korea,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9.0 and PROCESS Macro 4.1. Significant correlations emerged among childhood trauma,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and spousal support.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partia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Spousal support moderated the effect of childhood trauma on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however, among mothers with high levels of trauma, predicted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varied only minimally across levels of spousal support, indicating limited protection. Results suggest that social support does not consistently function as a protective factor. Interventions for caregivers with trauma histories should incorporate tailored strategies that consider the quality of spousal support and trauma-related emotional characteristics.

Key words : childhood trauma,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spousal support